담화표지어 '그냥'에 대하여

박혜선
(계명대학교)

Park, Hyeson. 2012. On the Discourse Marker 'kunya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1). 211-228. This paper examines the use and distribution of *kunyang* as a discourse marker in conversational Korean. A corpus of 58000 words constructed out of the Sejong Corpus was searched for the tokens of *kunyang*, 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each of the instances of *kunyang* were analyzed in light of the context it appeared in. A total of 231 tokens of *kunyang* were found, of which 50(21.6%) were adverbs and 171 discourse markers, with 10 unidentifiable ones. The functions of *kunyang* as a discourse marker include a mitigator, connective, emphasizer, filler, and hedge. The mitigator function, also evidenced in some adverbs and connectives, may have derived from the original meaning of *kunyang*, and conveys a speaker's intention to minimize the importance of some particular event, situation or process, possibly employed as a politeness strategy. Analyses of *kunyang* in more diverse contexts and with aural data are needed to obtain a complete picture of its function and distribution as a discourse marker.

주제어(Key Words):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kunyang*, 상호작용(interactional), 완화(mitigator)

1. 서론

본 논문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담화 말뭉치에 나타난 담화표지어[1] '그냥'의 다양한 의미와 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냥'의 품사는 부사이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영어 discourse/pragmatic marker의 한국어 표현으로 담화표지어, 담화표지, 화용표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한규(2011)의 용례를 따라 담화표지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①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② 그런 모양으로 줄곧
③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그러나 국어사전에 제시된 분류와는 달리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분석에 의하면 '그냥'은 부사뿐만 아니라 담화표지어로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관찰된다.

(1) 그래도 부서장이 좀 유들유들하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①그냥 부서에서도 사람들끼리 이케 막 인간적으로 친하고 이런 게 없어. ②그냥 일 얘기나 하고, 각자 ③그냥 개인플레이야. 재미없어 그러면서.

①에 사용된 '그냥'은 '그러니까'라는 접속부사 뒤에 나타나 화자가 다음 발화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벌기의 효과를 가지며, ②의 경우 앞뒤 발화를 연결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강화하는 기능과 함께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유지'에 비해 '업무와 관련된 대화'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는 기능도 한다. ③의 '그냥'은 '개인플레이'를 수식하며 그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명제의 전달보다는 발화자의 태도나 의견의 표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담화표지어로서의 '그냥'의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 다양한 기능과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안의정(2008)의 말뭉치 분석을 통한 어휘의 구어성 측정에 의하면 '그냥'은 구어성 점수가 가장 높은 50개의 어휘 중 43위에 속한다. 그의 분석에서 사용 빈도가 높이 나타난 부사로는 45위에 속하는 '좀'을 비롯하여 '다, 막, 이제, 정말' 등이 있는데, 안의정은 이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이 어휘들이 부사뿐만 아니라 담화표지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안의정에 의해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그냥'의 높은 빈도 또한 그것이 담화표지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전지은(2010)은 세종 말뭉치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부사의 종류와 빈도를 비교하였는데, 그의 분석에 의하면 '그냥'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부사에 속하며, 명제적 의미, 즉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채워주기'(filler)로 사용되는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이 채워주기 기능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그냥'의 다양한 담화표지어 기능 중의 하나에 속한다.

전지은(2010)에서 '그냥'의 담화표지어 기능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담화표지어로서의 '그냥'의 용법에 주목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이정애(1999, 2002)가 유일하다. 이정애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의 관점에서 담화표지어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그냥'은 구체적 영역에서의 '물리적 동일성'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간적 동일성'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심리적 동일성'의 의미

를 띄게 되었다. 이러한 부사 '그냥'의 명제적 의미가 점차 탈색되면서 구어에서는 부사뿐만 아니라 화자가 명제나 상대방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혹은 담화의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화표지어로 전환되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정애(1999, 2002)의 분석에 의하면 담화표지어로서의 '그냥'은 선후행 발화의 연결적 기능 강화, 전경과 후경의 경계 표시, 발언권의 유지, 화제의 전이 표시, 시간벌기 등으로 구분된다.

말하기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 중학생이 자기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사용한 담화표지어를 연구한 유진아(2009)의 분석에 의하면 '그냥'은 중학생의 발화에서 사용된 총 407회의 담화표지어 중 11회(2.7%) 사용되어 자료에서 발견된 담화표지어 중 여덟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유진아는 '그냥'의 담화표지어의 기능을 이정애에 기초하여, 강조, 시간벌기, 화제전환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담화표지어로서의 '그냥'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말뭉치의 일상대화 자료 중 9개를 선택하여 총 5만8천 어절의 말뭉치를 만들고, 이 자료에 나타난 '그냥'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이정애(1999, 2002)를 출발점으로 하되, 이정애의 분석 범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첨가하였다.

2. 담화표지어

담화표지어의 기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특징으로 연결성(connectivity), 비진리 조건성(non-truth conditionality), 다범주성(lexical heterogeneity), 다중기능(multi-functionality), 임의성(optionality), 구어성(orality), 문두 위치(utterance initiality)등이 있다(Aijmer, 2002; Brinton, 1996; Fischer, 2006; Fraser, 1999, 2006; Maschler 1994, 2009; Müller, 2005; Schiffrin, 1987; Schourup, 1999). Schourup(1999)에 의하면 이들 중 연결성과 비진리 조건성이 담화표지어를 다른 문법 범주와 구별 짓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연결성이 담화표지어의 대표적 자질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에 대한 이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인다. 비교적 좁은 의미로 연결성을 이해하는 대표적 학자로 Fraser(1999, 2006)를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담화표지어란 두 개의 발화 S1과 S2 사이에 나타나 후행 발화인 S2를 선행 발화인 S1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로 문두에 위치하는 접속사와 접속부사(and, but, anyway, however 등)에 속하는 어휘들이 담화표지어 기능을 한다고 한다.

Schiffrin(1987)의 담화표지어의 연결성에 대한 이해는 범위가 좀 더 넓다. 그에 의하면 담화표지어란 "담화의 단위를 구분하는, 순서적으로 의존하는 요소(sequentially dependent elements which bracket units of talk)"이다. 이원표(2001)에 의하면 여기서

담화의 단위란 문장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구와 단어 단위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담화표지어가 발화의 앞뿐만 아니라, 중간, 또는 끝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한다. Schiffrin(2006)은 담화표지어의 연결성을 좀 더 확대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담화표지어를 담화의 주요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지표(indexical)로 정립하고 있다. 즉, 담화표지어는 담화의 구성단위인 화자, 청자, 그리고 화제 사이의 연결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장치라는 것이다.

기능주의(Functionalism)의 관점에서 언어분석에 접근하는 Halliday와 Hasan(1976)은 언어체계를 의미전달(ideational), 상호작용(interpersonal), 텍스트구성(textual)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Halliday와 Hasan의 기능주의적 관점을 담화표지어 분석에 적용한 것이 Maschler (1994, 2009)에서 발견된다. Maschler는 담화표지어를 기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하위chler구분하고 있는데, 화자와 청자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는 기능(interpersonal), 텍스트에서 화제와 화제를 연결하는 기능(textual), 그리고 화자와 화제의 연결을 돕는 기능(cognitive)이 그것이다. 이 중 텍스트 상의 화제와 화제를 연결하는 기능은 다시 지시적(referential)인 것과 구조적(structural)인 것의 두 가지er나뉘는데, 이들은 응집력(cohesion) 있는 담화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Maschler에 의하면 담화표지어는 Halliday와 Hasan의 언어 기능 중 의미 전달(ideational)의 기능은 없으며, 화자와 청자, 화자와 화제 사이의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화제와 화제간의 연결을 통해 담화의 응집성을 돕는 언어 장치이다.

의미전달(ideational)기능의 결여는 연결성과 함께 담화표지어의 대표적 특징이며, Schourup(1999)에 의해 언급된 비진리 조건성(non-truth conditionality)과 관련된다. 즉, 담화표지어는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화용층(pragmatics)에서 작용하여 담화 참여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발화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진리 조건성은 따라서 담화표지어의 임의성을 함축한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충족시키는 담화표지어로서의 '그냥'이 구어체의 담화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사용되며 그 빈도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담화표지어 '그냥'

세종말뭉치 중 일상대화를 녹취한 9개의 자료를 선택하여 총 5만8천어절의 말뭉치를 만들고, 이 자료에 나타난 '그냥'의 용법과 의미를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2]. 총 231

2) 분석한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 3단계 1차년도 말뭉치 중 일부이다. 20-30대 남녀들이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중 혹은 강의 시작 전 등 일상에서 하루생활, 개인담, 정치/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격식체로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개의 '그냥'이 관찰 되었는데, 이 중 부사는 50개이며, 기능을 판별하기 어려운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171개는 담화표지어로 분류되었다.

담화표지어 '그냥'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그 의미와 기능이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뉘어 졌다[3]: 완화, 강조, 전후연결, 시간벌기, 얼버무림. Maschler(2009)의 담화표지어의 기능 분류에 따르면 완화와 강조는 화자와 청자를 연결하는 상호작용적(interactional) 기능에 속하고, 시간벌기와 얼버무림은 화제의 전개와 연결을 위한 화자의 노력과 관련된 인지적(cognitive) 기능이며, 전후연결은 화제와 화제의 연결을 강화하는 텍스트적(textual) 기능에 속한다. 이들 중 완화의 용법에 대해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부사로 사용되는 '그냥'과 전후연결의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어 '그냥' 중에서 완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냥'의 명제적 의미인 '아무런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에서 '완화'의 의미가 파생되어 '그냥'의 무표적 의미로 발달된 듯하다. 동사나 명사를 수식하며 부사의 성격이 분명한 '그냥'의 경우 완화의 의미를 포함할 때 부사 혹은 담화표지어로 간주하느냐의 판단이 쉽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냥'이 완화의 의미를 포함할 때에는 부사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을지라도 담화표지어로 분류하였고, 전후연결의 기능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완화의 의미를 포함할 경우에는 완화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부사로 사용된 '그냥'의 빈도는 50회로, 관찰된 전체 '그냥' 중 21.6%를 차지하였다. 담화표지어로는 완화의 용법으로 사용된 빈도가 가장 높아(63회), 사용된 담화표지어 중 36.8%를 차지하였다. 화자의 태도나 의견을 완화하는 용법 다음으로는 시간벌기의 기능이 빈도가 높았다(45회/26.3%). 전후연결의 기능으로 사용된 '그냥'의 경우 30회가 사용되었는데(17.5%), 완화의 용법으로 사용된 '그냥' 중 27개는 전후연결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실제 전후연결의 기능으로 사용된 '그냥'은 57개로 볼 수 있겠다. 강조의 기능을 하는 '그냥'이 25개로 완화의 기능을 하는 63개의 '그냥'과 함께 총 88개의 '그냥'이 상호작용의 기능으로 사용되므로 '그냥'의 가장 중심 되는 기능은 이정애(1999, 2002)가 주장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1에 '그냥'의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다.

부사의 일반적인 기능은 용언수식과 문장수식으로 간주되는데(임유종, 1998; 서상규, 1984), 부사로서의 '그냥'의 중심 기능도 용언수식으로 총 50회의 '그냥' 중 37회가 이에 해당된다.

---

3) Schiffrin (1987)은 담화표지어는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하나가 주요 기능(primary function)이고 나머지는 부가적 기능이라고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그냥'의 경우도 이 다섯 기능 중 두셋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가장 중심 되는 기능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표 1. '그냥'의 용례별 빈도

부사	담화표지어
동사(구)수식: 37	완화: 63
명사수식: 7	시간벌기: 45
문장수식: 6	전후연결: 30
계: 50	강조: 25
	얼버무림: 8
	계: 171
	불확실한 기능: 10
	총계: 231

(2) a. A: 딱 우리 학번만 딱 그랬잖아.
B: 그럼 넌 어떻게 했어.
C: 우린 *그냥* 한 거 같은데.
b. 여기다 *그냥* 떨어뜨리나 봐
c. 우리 과장이 끝나고 가길 원한다 그랬더니 아내가 끝날 때까지 있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d. 그리고 십자수는 *그냥* 하면은 재미없는데, 되게 마음이 복잡할 때, 너도 십자수 해 봤으면 알겠지만, 딱 그걸 하면 아무 생각이 안나.

(2a)와 (2d)의 경우 '그냥'이 '하다'를 (2b)에서는 '떨어뜨리다'를, 그리고 (2c)에서는 '가다'를 수식하는 용언수식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문장들에서 사용되는 '그냥'의 경우 생략이 되면 문장이 비문이 되거나 혹은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2a)의 경우 '그냥'이 생략되면 주어진 문맥에서 의미 전달이 어색해 지며, (2d)의 경우에는 '그냥'의 생략은 비문을 낳게 된다. 이러한 예는 부사는 담화표지어와는 달리 비진리 조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부사 '그냥'의 용법 중 특이한 것은 명사 앞에 위치하여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이다(7회).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바로, 꼭' 등이 이에 속하며 일반적인 부사의 기능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 된다(손남익, 1996).

(3) a. 아니 그게 내가 산거랑 틀리더라. *그냥* 카메라래메?
나는 비디오 카메라였어.

b. A: 차종은 뭐였는데?
B: 차밖에 관심이 없구나.
A: 아니야 다 듣고 나서 인제 하는 얘기지.
B: 그런 건 나 모르지. 알잖아 나 차종 모르는 거.
A: 쪼그만 차디?
B: *그냥* 스포츠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문맥이나 상황에서 두 개의 사물을 대비할 때 그 중 무표적 대상 앞에 붙여 '보통의, 일반적인'등의 뜻을 전달한다. (3a)의 경우 '그냥'을 사용함으로써 '비디오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의 의미를 전달하며, (3b)에서는 차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스포츠카라는 뜻을 전달한다. 이러한 '그냥'의 경우도 생략이 되면 문장이 어색하여 비진리 조건성을 배제하는 부사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담화표지어로 사용된 '그냥'의 예들을 세부 용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1. 완화(Mitigator)

이정애(2002)가 지적한 담화표지어 '그냥'의 중심 기능은 화자의 강화적 태도의 표출이다. 즉, 원래의 명제적 의미를 탈색하고 화자의 단순한 표출적 의미로 사용되는 담화표지어 '그냥'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모어 화자의 발화 자료에 의하면 '그냥'의 가장 현저한 의미로 부각되는 것은 화자의 태도의 '강조'가 아니라 '완화'이다. 이는 '그냥'의 원래의 뜻인 '아무런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며,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담화표지어 '좀'의 경우와 같이 원래 완화의 뜻에서 출발하여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강조의 뜻이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cf. Ahn, 2009).

완화 표지어로서의 '그냥'은 영어의 just가 담화표지어로 사용될 때의 용법과 유사한 것이 주목되는데, 먼저 담화표지어로서의 just의 용법과 의미를 살펴보고 그와 비교하여 '그냥'의 용법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부사 just가 담화표지어로 사용될 때 그 의미 중 가장 중심되는 것이 최소화(minimizer) 혹은 완화(mitigator)라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Lee(1987)의 just 분석에 의하면 just는 화자가 담화 상에서 이전에 언급된 어떤 사건, 행동 혹은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 혹은 사건의 중요성 혹은 비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 The speaker minimizes the significance of some particular process by comparison with some other process explicitly mentioned in the

discourse. (Lee, 1987, p. 379)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명시적으로 먼저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서 암시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4) a. That's to be used if you *get a high fever*. If you've just *got a cold*, there's no point in using it. (명시적 대조)
b. I was very dizzy- I just went to bed. (암시적 대조)

(4a)에서는 'got a cold'가 just에 의해 수식됨으로써 'get a high fever'와 비교하여 심각하지 않은 증상임을 전달하고 있다. 유사한 상황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독감이 아니라 그냥 감기에 걸렸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여 '그냥'을 사용하여 just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다. (4b)의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상황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문장에서 just가 수식하는 '잠자리에 들다(went to bed)'와 비교가 되는 대상을 상황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혹은 '외출하지 않고' 등이 가능하겠다.

Lee(1987)는 just의 '완화'가 전달하는 의미 중 하나가 공손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청유문 혹은 명령문에서 just는 공손함을 전달하여 명령을 따르는 것이 '체면'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compliance with the directive does not involve any loss of 'face' for the patient. Lee 1987, p. 383).

(5) a. Just relax now.
b. Just close your eyes.

Lee(1987)와 유사한 분석이 Lindemann과 Maranen(2001)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이들이 수행한 구어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just의 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최소화(minimizer)의 기능인데[4], 이들은 이 최소화의 기능을 세분하여 제한(limiter)과 완화(mitigator)로 나누고 있다. 완화의 기능을 하는 just는 요청이나 제안 또는 경고를 할 때, 혹은 체면을 손상시킬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거나 겸양의 뜻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Aijmer(2005)는 이러한 just의 기능을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의 전략과 연관하여 특히, 이 기능은 대화 상대자의 영역의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 즉 부정적 공손 전략(negative polite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4) Aijmer(1985, Lindemann과 Maranen, 2001에서 재인용)의 영국 구어 자료 분석에 의하면 just의 여러 용법 중 강조의 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Lee(1987)에 의하면 just가 공손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담화표지어 기능을 하지만, 최소화(minimizer)의 의미를 가진 담화표지어 just와 제약(restrictive)의 의미를 가진 부사 just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말의 '그냥'도 just와 마찬가지로 완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 부사와 담화표지어로 사용된 예를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완화의 의미가 부사 '그냥'과 담화표지어 '그냥'의 공통된 의미인 것을 인정하며, 완화의 의미를 가질 경우엔 부사의 성격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지라도 담화표지어로 분류하는 방법을 택했다.

세종말뭉치에서 관찰된 용례를 통해 완화의 의미를 가진 '그냥'을 살펴보기로 하자.

(6) a. 아니 그러진 않는데 어쩌다 한번씩 보면은, 어- 그 사람이 행동했던 거하고 그 사람 성격하고 매치해 갖고 그 사람 떠올리는 편이야. 그래갖구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그냥* 사람들 이름은 잘 기억하는 편이고. 그런 거 했는데, 요새는 쪼끔쪼끔씩 까먹을라구 그러구 있어.
b. 근데 사실 음악 정말 열심히 듣고 그런 애들 보면은 장난 아니거든,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음악에 대해서, 딱 그런데 난 그러지는 못해. *그냥* 듣는거 좋아하고, 부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뭐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구
c. 피아노 *그냥* 좀 칠 줄 알아요.

(6a)에서 사용된 '그냥'은 동사구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하다' 앞에 위치하여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자신의 능력이 별것 아니라'는 화자의 겸손을 전달한다. (6b-c)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음악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대한 언급에서 담화표지어 '그냥'을 사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음악 애호가에 비해 지식이 부족하거나 피아노 실력이 보잘 것 없음을 말하며 겸양의 태도를 전달한다. 이러한 용법의 '그냥'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는 Brown과 Levinson(1987)의 긍정적 공손전략(positive politeness)과 관련된다.

아래 예문 (7)은 화자가 자료 채집을 위해 녹음을 시작하며 청자에게 발화를 부탁하는 상황에서 청자가 과도한 부담을 갖거나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사용한 부정적 공손전략(negative politeness)의 '그냥'을 보여준다.

(7)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돼.

이러한 부정적 공손 전략의 '그냥'은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일상 담화 자료에서는 1회 관찰되었는데, 이는 본 논문의 자료가 동등한 관계의 친구 혹은 동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부정적 공손전략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드물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동사의 필수 성분 혹은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에서 부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완화의 의미가 더 부각되므로 담화표지어로 분류한 예가 (8)에 제시되었다.

(8) a. 나 작품될 거 같아. 시인론은 *그냥* 베끼면 되잖아. 자료 많이 찾구.
b. A: 음 내 친구 든 산악회 그런 거 아니래.
B: 모가 아니래, 된대?
A: *그냥* 초보자 산악회래.

위의 (8a)에서는 '그냥'이 '베끼다'라는 동사 앞에 위치하여 '시인론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8b)의 경우 '그냥'이 명사 '초보자 산악회'를 수식하며, '등산의 경험이 있거나 산악훈련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위한 산악회'가 아니라 전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이들이 모인 산악회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아래 예문 (9)에서는 선행 발화와 연결의 기능을 하며 완화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냥'의 예를 볼 수 있다.

(9) A: 근데 난 그케 남자가 남자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보통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 정도 되면, 후계자로 삼지, 그런 건데, 이상하네. 능력이 있나보다 야.
B: *그냥* 같이 살았었으니까

(A)의 발화에 대한 (B)의 응답에서 '그냥'의 기능은 A의 발화 중에서 '능력이 있나보다'와 대조하여 '능력이 있기보다는'이라는 뜻을 함축하며 두 사람의 담화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그냥'은 '같이 살았다는 것'이 그를 좋아할 충분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를 좋아하기에 기본적인 조건은 된다는 의미로써 그를 좋아하는 조건을 '완화' 하는 기능을 또한 하고 있다.

말뭉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그냥'의 예도 이러한 완화의 용법에 속한다.

(10) a.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b. 그는 천재가 아니라 *그냥* 모방을 잘 할 뿐이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음'을 전달하며 사용한 '그냥'이나, '단지 모방에 능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사용한 '그냥'은 모두 주어진 명제를 완화하여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들을 문장에서 생략해도 의미가 달라지거나 비문

이 되지 않는 담화표지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완화의 기능을 하는 '그냥'은 대부분 그것이 수식하는 구나 절 앞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2. 전후연결(Connective)

이정애(1999)에 의하면 아래 (11)의 예에서 보듯이 '그냥'이 연결어미 '-고' 혹은 '-께' 다음에 나와 전후 문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기능은 '그냥'의 부사로서의 뜻인 '물리적 혹은 시간적 동일성이 그대로 지속되는' 의미가 잔재하여 화자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강하게 연결하려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1) a. 여수에 마땅한 큰 애기가 있은께, *그냥* 어떻게 해서 고리 장가 갈라냐고
b. 막 서른에 돌아가셔분께, *기양* 할마이가 혼자 그 세상을 삼시로, 옛날에는 시무럴 사는 일이 있었어.
c. 나이가 군인에 갈 연령이 되었으며는 *그냥* 군인으로 잡아가야지, 둘 것이여?
(이정애, 1999, p.123)

본 논문의 자료 분석에서도 '그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전후연결 기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전후연결 기능은 '그냥'의 부사로서의 뜻인 '물리적 혹은 시간적 동일성이 그대로 지속되는 뜻이 잔재하여 화자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강하게 연결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고 제의한 이정애의 설명을 따르지 않고 위에서 살펴본 Lee(1987)의 just의 분석에 기초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Lee(1987)에 의하면 just는 '이전에 언급된 어떤 사건, 행동 혹은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 혹은 사건의 중요성 혹은 비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Just가 전달하는 '최소화'의 의미는 위에서 '완화'의 용법으로 논의하였다. Just가 가지는 다른 기능은 '이전 담화에서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언급된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비교'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just'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혹은 상황에서 언급된 다른 대상과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Halliday와 Hasan (1976)의 응집성 이론(cohesion)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Halliday와 Hasan에 의하면 텍스트의 응집을 위해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에는 지시어(reference), 대용어(substitution), 생략(ellipsis), 어휘(lexical), 연결어(connective) 등이 있는데, 영어의 담화표지어 well, anyway, of course 등은 연결어(connective)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담화의 응집을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한국어 구어 담화 말뭉치 분석에 의하면 영어의 just와 마찬가지로 담화표지어 '그냥'도 화자가 텍스트의 응집을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전후 문맥을 연결하는 연결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5].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2) A: 어제두 꿈 꿈꿨어. 너두 나왔구 지영이도 나왔는데 지영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꿈에두 나타나구.
B: 그래? 나한텐 왜 전화 안 해?
A: 너는 전화하잖아?
B: 내가 전화했잖아. 꿈꾼 사람이 해야지.
A: *그냥* 너는 뭐 맨날 보잖아

이 대화에서 A는 왜 자신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느냐는 B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유를 제시하며 '그냥'을 사용하여 '전화를 안 한 이유는'이라는 말을 함축하며 선행 담화와 연결을 하고 있다.

아래의 담화에서 '그냥'이 지칭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부를 위한 더 비싼 특별한 것 말고'라는 의미로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13) 그렇지 뭐 .나두 요번에 미르 아니 그 웨딩샵 가면 무료로 해 주잖아 이회. 해 주니깐 그 아가씨가, 아 신분데 특별히 우리가 몇 만원만 더 주면 또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세요 고러면서- 피부두 안 좋은데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냥* 해 주는 걸로 해 주세요 그랬어.

(14)에서 사용된 '그냥'의 경우에도 지칭하는 대상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전후 담화의 연결 기능을 하고 있다.

(14) a. A: 기름이 대박인데?
B: 응. 더 먹었으면 넘쳤겠다 야
C: *그냥* 이거를 손으로 집으세요?
A: 뜨겁지 않으실까요?
b. 근까 화가 날 안 나는 거 아니지, 나도 늘 착한 뭐 그런 게 아닌데. 표현을 안 한다고 해야 하나, *그냥* 화를 낼 정도의 상황인가-요런 느낌도 드는 거 같기도 하구.

(14a)의 경우 '그냥'이 함축하는 의미는 '뜨거울 텐데 장갑이나 타월을 사용하지 않고' 이

5) '그냥'을 연결어의 범주에 넣지 않고 지시(referential)어의 범주에 넣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그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문맥이나 상황에서 지시하는 대상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며, (14b)에서는 '표현을 안 하기보다는' 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두 경우 모두 '그냥'의 기능은 함축된 의미를 통해 선후 발화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3.3. 강조(Emphasizer)

영어의 just 혹은 우리말의 '좀' 등 담화표지어들은 완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와 상반되는 강조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는데(구종남, 1998; 목정수, 2001; 박혜선, 2011; 손세모돌, 1989; 안주호, 2009; 주경희, 2000, 2004; Lee, 1992; Yu, 2008), '그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화와 함께 강조의 기능을 가진다[6]. 이정애(1999, 2002)는 '그냥'이 가지는 강조의 기능은 텍스트에서 후경과 분리하여 전경을 강조하는 것과, 상호작용에서 화자의 태도나 의견을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더 빈번하여 '그냥'의 주요한 기능은 상호작용(interpersonal) 기능이라고 제안하였다.

(15) a. 가사 내용얼 보고 소리 그 음정과 멜로디 이해할라치면 우리나라 요 판소리 *걍* 세계적이여
b. 그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인자 아 이런 게 아 수십 명 살릴라 다 못 살렸는디 말이여, 아 *걍* 갓 찾는 놈, *걍* 창옷 찾는 놈, 걍 들고서 싹 나가버려.
c. 돈을 가방으로 하나씩 갖고 와 *그냥*

(이정애, 1999, pp. 122-125)

(15a)가 전경과 후경을 구분 짓는 텍스트적 강조의 용법이고 (15b-c)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심리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용법의 '그냥'은 강조하는 표현의 앞이나 뒤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강조의 '그냥'은 25회로 문장의 제일 끝에 위치하며 앞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한 태도를 전달하거나 어떤 표현에 선행하여 뒤에 나오는 표현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그냥'이 강조하는 표현을 선행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16) a. 정말 문제가 있는 거 같애. 애가 둘인데, 밤새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구,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맨날.
b. 근데 고시생이 의외로 이런 거에 대게 민감해. 그건 사생활 침해래. 아- 해서 내가 *그냥* 한 마디로. 알았다 알았다. 그만 하자. 그러면서 딱 *그냥* 말았어.

---

6) 담화표지어 좀, 뭐, 그냥 등은 완화와 강화의 상반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Ahn(2009)에 의하면 대부분의 담화표지어의 어휘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약화와 관련되나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강화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16a)에서는 밤새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냥'을 덧붙임으로써 밤새기를 많이 한다는 뜻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보인다. (16b)에서 사용된 2회의 '그냥'은 각각 '한마디로'와 '말았어'를 강조하며 화자가 상대방의 발언에 의해 상한 자신의 기분을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진다. 문장의 제일 뒤에서 선행하는 문장에 나타난 명제를 강조하며 화자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예는 아래와 같다.

(17) a. A. 영수는, 참 여러, 많은 사람들을 챙기면서 살어 *그냥*
B. 그래? 어전히?
b. 내용이 다 똑같애. 보면 대충. 흐름을 딱 알겠다니까 *그냥*

(17a-A)에서 화자는 문장의 제일 뒤에 '그냥'을 사용함으로써 영수의 오지랖 넓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부정적 혹은 긍정적)을 강조하고 있다. (17b)에서는 문미의 '그냥'이 앞 명제 전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 '딱'의 앞에 위치한 '그냥'을 문미로 후치함으로써 문장 전체를 강조하는 효과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18)의 대화에서 사용된 '그냥'도 '뒈져 버려라'라는 발화의 뒤에서 이미 강한 뜻을 가진 문장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18) A: 못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더 잘 할려고 노력할 거 아냐. 그런 거마저도 없으면 어떡해.
B: 죽어야지
A: 뒈져 버려라 *그냥*

3.4. 시간벌기(Filler)

'그냥'의 시간벌기 기능은 Maschler(2009)가 분류한 담화표지어의 기능 중 인지적(cognitive) 기능에 해당한다. 이것은 화자가 발화 중 다음의 발화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정애(1999, 2002)에서도 '시간벌기의 효과'라는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말뭉치에서 시간벌기의 기능으로 사용된 '그냥'은 45회로 63회 사용된 완화의 기능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용법이다. 시간벌기의 용법으로 사용된 '그냥'은 '그냥 뭐', 혹은 '뭐 그냥'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며 단어나 구 혹은 절 사이에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한다.

(19) a. A: 그 의외로 안 아프드라, 오랜만에 많이 운동했는데.
B: 운동 첫 번째 준비운동하고 마지막에 정리운동 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해진 틀이 있으니까 *그냥* 뭐 난 또 워낙 좋아하니까 뛰는 걸

b. 그니까 만약에 뭐, *그냥* 평소에 *그냥* 보통,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저거 미쳤나 이랬을 거야.
c. 그런 이야기까지 난 들었어. 그래서 아예 뭐 *그냥* 어디에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었다 이게 아니라,
d. 예전에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얘기해서만 알고 계시구?

(19a-B)에서 화자가 앞의 발화에 연속하여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려고 할 때 발화를 준비할 시간을 '그냥 뭐'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얻고 있다. (19b-d)에서는 화제의 원활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그냥'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생각을 정리하여 발화를 산출할 시간을 얻고 있는 예를 보여 준다. 이러한 시간벌기 기능은 화자와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화제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돕는 기능으로 대부분의 담화표지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3.5. 대답회피/얼버무림(Hedge)

화자가 대답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려 할 때 '그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능의 '그냥'은 8회 관찰되었는데,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그냥 그렇게/그렇대' 혹은 '그냥 그런'의 형식으로 사용되거나 발화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여 발화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다.

(20) a. 스토리 자체는 별로 *그냥* 그렇대.
b. 이게 결코 우리나라 국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부시가 뭐라고 한마디 한 거지. 야 느그들은 어째 그래? 뭐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한다 육성한다 이러니까 *그냥* 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c. 지금 취미생활이라고 딱 하는 건 십자수라고 쓰는데, 십자수하고 볼링하고 *그냥* 그런 거

4. 결론

본 논문은 세종말뭉치 중 일상담화를 녹취한 자료 중 9개를 선택하여 5만 8천 단어 정도의 소규모 구어 말뭉치를 만들고 이에 나타난 '그냥'의 빈도와 기능을 분석하였다. 총 231개의 '그냥'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50개 (21.6%) 정도의 '그냥'은 부사이며, 의미 파악이 어려운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171개는 담화표지어로 분류되었다. 담화표지어 '그냥'의 기능은 완

화, 강조, 전후연결, 시간벌기, 대답회피의 다섯 종류로 파악되었고 이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완화의 의미였다. 이는 '그냥'의 본래의 의미인 '아무런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수식하는 대상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거쳐, '수식하는 대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듯하다. 이러한 완화의 용법은 공손의 전략과 연관하여 설명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장점을 과소평가하여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긍정적 공손전략과 대화 상대자의 영역의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강요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공손전략과 관련이 있다.

완화의 의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용법은 시간벌기이며, 그 다음은 전후연결의 기능이었다.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강하게 표현하는 강조의 기능과 대답을 회피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피하고 얼버무릴 때에도 '그냥'이 사용되었다. 담화표지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에 포함되는 완화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 '그냥'이 총 88회로 전체 담화표지어의 51.5%를 차지하므로 '그냥'의 중심 기능은 화자와 청자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담화표지어의 사용은 언어 사용의 상황이나 담화의 종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다(Fuller, 2003). 따라서 '그냥'의 경우도 담화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른 사용 분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동료나 친구 사이의 담화를 채집한 자료에 나타난 '그냥'을 살펴보았는데, 이로 인해 상호작용 기능이 현저하게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강의나 강연, 전화대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그냥'의 용례를 분석하여 상황에 따라 '그냥'의 용법과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담화표지어 '그냥'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성 자료를 분석하여 억양과 발음에 따른 용법과 의미 차이를 같이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구종남. (1998). 화용표지 '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1*, 411-434.

목정수. (2001). '좀'의 기능과 문법화. *언어학, 28*, 77-100.

박혜선. (2011). 담화표지어 '좀' 사용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응용언어학, 27*, 29-52.

서상규. (1984).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 73-114.

손남익. (1996). 한국부사와 수식 대상. *한국어학, 4*, 47-66.

손세모돌. (1989). '좀'의 상황적 의미. *한국학논집, 14*, 477-506.
안의정. (2008). 말뭉치를 이용한 어휘의 구어성 측정과 활용. *어문논집, 57*, 93-119.
안주호. (2009). 축약형 담화표지 '좀/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 199-223.
유진아. (2009). *말하기 학습자의 화용표지 사용 실태 및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3 학년 '자기 소개하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표. (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이정애. (1999).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애. (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이한규. (2011). 한국어 담화표지어 '에'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5*, 171-197.
임유종. (1998). 부사의 수식범위와 성분통어. *한양어문, 16*, 181-209.
전지은. (2010). 성별에 따른 한국어 부사 사용 양상: 세종 구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언어와 언어학, 47*, 191-217.
주경희. (2000). 대화에서의 '좀'의 기능. *국어국문학, 126*, 75-99.
주경희. (2004). '좀' 문법화의 의미,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115*, 432-453.
Ahn, K-J. (2009). A discourse-pragmatic study of com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5*, 257-281.
Aijmer, K. (2002). *English discourse particles: Evidence from a corpus*. Amsterdam: John Benjamins.
Aijmer, K. (2005). Just and multifunctionality. In K. McCaffeity, T. Bull, K. Killie, & T. Swan (Eds.), *Contexts-historical, social, linguistic: studies in celebration of Toril Swan* (pp. 31-47). Bern: Peter Lang AG.
Brinton, L.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Mouton de Gruyter.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cher, K. (2006). *Approaches to discourse particles*. Amsterdam: Elsevier.
Fraser, B. (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931-952.
Fraser, B. (2006). Towards a theory of discourse markers. In K. Fischer (Ed), *Approaches to discourse particles* (pp. 189-203). Amsterdam: Elsevier Ltd.
Fuller, J. (2003). Discourse marker use across speech contexts: A comparison of native and non-native speaker performance. *Multilingua, 22*, 185-208.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Lee, D. (1987). The semantics of *just*. *Journal of Pragmatics, 11*(3), 377-398.
Lee, H-K. (1992). *The pragmatics and syntax of pragmatic morphemes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Lindemann, S., & Mauranen, A. (2001). It's just real messy: The occurrence and function of *just* in a corpus of academic speech.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0,* 459-475.

Maschler, Y. (1994). Metalanguaging and discourse markers in bilingual conversation. *Language in Society, 23,* 325-366.

Maschler, Y. (2009). *Metalanguage in interaction: Hebrew discourse markers.* Amsterdam: John Benjamins.

Müller, S. (2005). *Discourse markers in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iffrin, D. (2006). Discourse marker research and theory: Revisiting *and.* In K. Fischer (Ed.), *Approaches to discourse particles* (pp. 315-338). Amsterdam: Elsevier Ltd.

Schourup, L. C. (1999). Discourse markers. *Lingua, 107,* 227-265.

Yu, K-A. (2008). The NSM-based approach to a Korean discourse marker *jom. Discourse and Cognition, 15,* 85-109.

박혜선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53)580-5091
이메일: parkhy@kmu.ac.kr

Received on 10 November,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31 December, 2011
Accepted on 26 February, 2012